

민주열사 유족 70여명 모여 아들·딸 넋 위로

“한열아… 철규야…”

20년 지나도 마르지 않는

어머니들의 눈물

고(故) 이한열(당시 21세·연세대 2년·최루탄 맞아 87년 7월5일 사망)·노수석(20세·연세대 2년·경찰 폭력으로 96년 3월29일 사망)·이철규(24세·조선대 4년·경찰 추적 피하다 89년 5월10일 사망)·류재을(20세·조선대 2년·시위 중 쓰러져 97년 3월20일 사망)…민주 열사의 유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평생 가슴에 품고 있는 아들·딸의 넋을 위로하고 그들이



고(故)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숙씨가 지난 2일 일워낸 민주주의의 옛 전남도청에 전시 중인 '37인의 호남지역 민족 참을 기렸다.

‘6월 민주항쟁 20주년 광주·전남 행사위원회’(상임대표 배종렬) 주관으로 2일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‘민주가족 한마당’ 행사를 찾았다. 꽃다운 나이에 민주화를 위해 숨진 열사들의 유가족과 ‘살아남은 자’의 죄스러움으로 먼저 간 동료의 정신을 끌내 계승 발전시키는 민주인사 등 70여 명이 모처럼 한 데 모였다.

민주가족들은 이날 옛 도청 앞 ‘민주의 종’에서 진행된 마당극 ‘6월의 꽃이 피었습니다’와 옛 도청 3층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‘6월 항쟁 시민체험 마당’, 광주·전남지역의 6월 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관람한 뒤 식사를 하며 함께 그날의 의미를 되새겼다.

유족들은 그러나 ‘37인의 호남지역 민족민주열사 걸개그림전’에 전시돼 있는 자작·형제의 그림을 보고 참았던 울음을 쏟아냈다.

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숙(68)씨는 “20년이 흘렀지만 단 한 순간도 잊은 적도, 잊으려고 한 적도 없어 눈물을 마르지 않는다”며 “남들은 6월 항쟁 20주년을 축제라고 말하지만 내겐 마음이 부서져 내리는 시 간일 뿐”이라며 눈물을 쥐었다.

농성지하차도 보수공사

오늘부터 수시 통제

광주 농성지하차도의 보수·보강공사를 위해 상부 도로가 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수시 통제된다.

광주시는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4 단계로 나뉘어 일부 차로를 수시로

통제할 방침이다.

서구 농성동 제1순환도로와 상부로 교차점에 위치한 농성지하차도는 지난 88년 시설돼 20년이 경과했는데,

지난해 정밀 안전진단 결과 슬레이브 내

하력 부족으로 D급 판정을 받았다.

도로는 총 연장 215m이며 그중 옹벽 구간이 165m, 박스 구간은 50m이다.

/김주정기자 jjnews@kwangju.co.kr

전남 해수욕장 4곳 전국 첫 개장



최근 종영된 TV 드라마 ‘고맙습니다’의 촬영지인 신안 증도 우전 해수욕장.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지난 2일, 각지에서 찾은 피서객들이 모래성을 쌓고 바닷가를 걸으며 즐거워하고 있다. /신안 증도=최현배기자 choi@kwangju.co.kr

▲ 6월 4일 광주 일보 기상예보

▲ 6월 4일 광주 일보 기상예보